



4면

시·군과 교육협력 '작작'

전주매일

www.jjmaeil.com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2년 12월 23일 금요일 (음 12월 1일) 제3168호

대표전화 (063)288-9700



22일 더메이 호텔에서 열린 전북·삼성 스마트 공장 CEO 포럼에 김관영 도지사와 주은기 삼성전자 부사장 김동욱 ESG&스마트공장 지원 센터장 한석희 4차산업혁명연구소 소장, 스마트공장 구축기업 대표 등 참석자들이 삼성전자와 함께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확산에 동참할 것을 약속하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추진

전북도, 삼성전자와 스마트 공장 CEO 포럼... 도내 참여 증기 30개로 확대

내년 참여기업 자체 부담금 20%로 인하·도비 20%까지 높이는 방안 추진

전라북도(도지사 김관영)가 글로벌 기업인 삼성전자와 손을 맞잡고 내년 부터 도내 중소기업의 제조혁신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선다.

전북도는 도내 중소기업들의 스마트 제조혁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삼성전자 스마트 제조혁신에 참여했던 도내 중소기업 대표들과 삼성전자 관련 임·직원들이 함께 힘을 모으는 포럼을 구성했다.

이에 22일 전북도와 삼성전자, 전북테크노파크는 더메이 호텔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삼성전자 주은기 부사장, 김동욱 ESG&스마트 공장 지원센터장 등 삼성 멘토단 20명을 비롯해, 스마트 공장 구축기업 대표 23명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삼성 중소기업 스마트 공장 CEO 포럼'을 공동으로 1차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김관영 도지사가 삼성전자와 도내 스마트 제조혁신 성공기업 대표들에게 먼저 제안해 결실을 거둔 것으로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 추진하기 위해 전북도와 삼성전자·도내 기업들이 힘과 지혜를 모으기로 한 것.

포럼은 김관영 지사의 개회사에 이어 한석희 4차산업연구소 소장의 기초

연설, 정철영 위제스 회장의 발제, 한석희 소장을 좌장으로 스마트 공장 구축기업들을 대표로 문성호 나리찬 대표 등 4명이 '전북 중소기업들의 제조 혁신을 위한 스마트 공장 확산 방안'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또한 이날 포럼에서는 지난 2016년부터 삼성전자 멘토들과 함께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전북 지역 120여개 기업 중에 23개 기업 대표들이 스마트 제조 혁신 사업 홍보단과 기업 전담 멘토단으로 활동하기로 했다.

삼성전자의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삼성의 제조·기술 노하우를 중소기업 맞춤형으로 전수하는 사업이다. 정부와 삼성이 총 사업비의 60%를 지원해 스마트공장 구축기간 동안 삼성전자 소속 전문가 멘토들이 각종 경험·노하우 등 혁신역량을 전수하며, 구축 이후에도 인력양성, 판로 개척 등 사후관리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전북도는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을 위해 현재의 지원제도에 더해, 기업의 자체 부담금을 현재 35% 수준에서 20%로 낮추고 도비 지원을 기존 5%에서 20%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삼성전자의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도내 중소기업의 수도 10개에서 30개로 3배 확대해 도내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의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날 토론은 한석희 소장이 좌장을 맡고 삼성 스마트 공장지원센터가 지원한 엔제이컴퍼니 주남진 대표, 나리찬 문성호 대표, 대풍년농조합 김창우 부사장, 에센테크 김성용 본부장 등이 토론에 참여해 스마트 공장 구축 경험과 현재 상황을 공유하고 실제 사례에 바탕을 둔 다양한 역량 강화 방향과 성공 요소 등을 제안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기업유치와 동시에 도내 기업들이 성장하고 성공해야 한다"며 "삼성전자와 전북도가 손을 잡고 전북형 스마트 제조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도내 기업들과 함께 혁신하고 함께 성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김동욱 ESG&스마트공장지원 센터장도 "삼성이 보유한 역량을 아낌없이 지원해 전라북도 기업의 제조혁신을 돕고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닌 판로개척, 인력양성 등 사후관리 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환경청,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미이행 12곳 적발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환경청은 시기별 주요 점검사항을 발굴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관리 강화에 나서고 있다.

환경부 소속 전북지방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올해 전북도내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 104개소를 점검한 결과, 협의내용을 미이행한 사업장 12개소가 적발됐다.

주요 위반 사항에는 '방진망 방진덮개 미설치 등 비산먼지 저감대책 미이행(6개소), 침사지, 가배수로 관리 미흡 등 수질오염 저감대책 미이행(3개소), 수질 항목 협의기준 초과(2개소), 사후환경영향조사 일부 미실시(1개소)' 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환경청은 위반사업장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사항을 개선하도록 사업 승인기관 등에 이행 조치 명령을 요청했으며, 환경영향평가 협의 전 사전공사 시행으로 적발된 지자체와 사업장 4개소에 대해 별도 고발 조치를 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시기(12월~3월)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해빙기·장마철에는 지반침하 및 사면유실 등이 우려되는 사업장을, 선별 후 집중적으로 점검해,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취지이다. /김영태 기자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만경강·요천 등 2곳 선정

전북도, 국비 445억원 확보... 치수 등 통합 연계 추진
만경강 살리기 협약서 수질 개선 실행력 확보 계기
요천, 광한루 연계 시너지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

전북도는 환경부의 '지역맞춤형 통합하천 공모사업'에 만경강과 요천이 선정돼 국비 445억원을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환경부는 물관리일원화를 계기로 2022년 하반기 공모를 통해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대상지로 전국 22개소를 선정했다.

이 사업은 국민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하천공간 내 여가활동 증가에 맞춰 하천 본연의 기능이 상실 또는 훼손된 하천의 재자연화 및 순기능 증진을 통해 친환경 수변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정책이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만경강 요천에 국비 445억원을 포함, 총 889억원을 투자해 치수, 이수, 수질, 생태, 친수, 경관 등 다양한 하천 사업을 통합적으로 연계 추진할 계획이다.

그간 국가하천 내 체육시설, 파크골프장 등 친수시설은 대부분 점용허가를 받아 지자체 예산을 투입해 조성에 왔으나 이번 공모 사업을 통해 국비를 지원받아 지자체에서 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만경강은 지난해 8월 전북도, 환경부, 완주군 K-water 등 8개 기관이 협약한 '만경강 살리기 협약서'의 수질개선·생태복원에 대한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또한, 인근에 삼봉지구·운곡지구 등 대단위 택지개발사업이 개발 또는 예정되어 있어 친수공간 조성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요천은 지난 2020년 8월 담하류수해 등 홍수피해가 많은 하천으로 제방 보강 및 하도유역화 방지 등을 통해 항구적 대책이 마련됐으며, 전북 대표 관광지인 광한루에서 발생하는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는 시너지 효과로 지역경

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전문가로 구성된 자체심사위원회를 통해 환경부 공모 취지에 맞는 적정 대상지를 선정하고, 발표 및 지역균형 평가에 대비, 사전컨설팅과 논의를 개발하는 등 공모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시군, 전북지방환경청과 공조 협력해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

특히, 이번 공모사업에는 김관영 도지사와 이용호 국회의원의 중앙부처 인맥이 숨은 조력자로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환경부에서 사업대상지에 대한 기본구상을 내년까지 마련하고,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생태·환경 자산의 가치창출"은 민선8기 도정목표의 중요 전략으로 만경강, 요천 등 전북이 보유한 비교우위 자원을 적극 활용하겠다"며, "환경과 산업·관광 요소를 접목해 경제적 부가가치 제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도지사가 직접 중앙 공모사업에 발로 뛰는 등 적극 대응해 국비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환경부의 '지역 맞춤형 통합하천 공모사업'에 완주군 만경강이 선정된 것과 관련 환영 의사를 표했다.

안 의원은 "완주군의 젖줄인 만경강을 지역주민의 뜻에 따라 환경을 개선하고 친수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국가사업에 선정됐다"라며 "완주군과 긴밀히 협력해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문화, 환경, 생태 보기가 되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손 씻기·마스크 착용... 개인방역 수칙 준수해주세요.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2023. 1. 1. 부터

김제시와 함께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하면 혜택받고 김제 발전까지!

10만원 기부시 13만원 혜택 (세액공제 10만원+답례품 3만원)

주민등록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 가능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 (법인불가))

기부금의 30% 이내 답례품 제공 (쌀, 누룽지, 고구마, 사인머스켓, 농산물꾸러미, 김제사랑상품권 등)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혜택 (10만원 기부시 전액, 초과분은 16.5%)

기부방법 온라인 | 고향사랑e음 사이트
오프라인 | 전국 농협 창구

문의 김제시 자치행정과
☎ 063-540-3304

고향사랑기부금은 김제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투명하고!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주민복지 증진 사업, 청소년 육성보호 취약계층 지원 등)

